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규모 식품업체 부담 낮추는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무상 실시

-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부터 실습교육·시험검사까지 전방위 무상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2018년부터 8년 연속 해당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약 9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업체 가운데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5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이전 기술지원 받은 업체 중 희망업체 ⑤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이 중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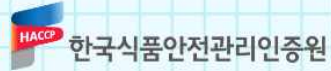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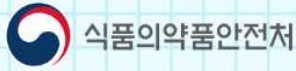
주요 지원 내용은 ▲업체별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는 1:1 현장 기술지원 시 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예방 등을 담은 현장 교육 게시물과 함께 앞치마, 위생가운 등 위생용품, 디지털온도계, 데이터로거 등 모니터링 도구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이번 사업은 소규모 식품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육·훈련 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공지사항과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인증관리팀(043-928-011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	책임자	부서장	서연범 (043-928-0110)
		담당자	팀 장	이재형 (043-928-0111)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 안내

26년 6월
~
26년 11월
무상 지원

사업기간

2026년 6월 1일(월) ~ 11월 30일(월)

참여대상

-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업소
- 2025년부터 신규로 영업등록한 업체
-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 이전 기술지원 받은 업체 중 희망업체
-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



참여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QR코드 연결하여 작성 후 제출)
- 신청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 (T.043-928-0113)

사업내용

- ①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 법령 위반 유형, 생산제품의 특성별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 식품위생·안전관련 법령 교육 및 정보제공
 - 현장 운영 미흡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 수출 부적합 원인 분석 및 수출국 규정 검토 등
- ② 미생물 실습 집합교육 운영
 - 미생물 시험·검사방법 실습(시험검사기관 현장실습)
 - 법령 주요 개정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안내
- ③ 공정 개선 효과 확인
 - 개선효과 확인을 위한 공정품 시험 검사 지원

